

이야기 2 : 아담과 하와

주제말씀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동산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어요.
아담은 그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짓게 하려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열매들이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빨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활동 1.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 눈코입을 붙여 완성해주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